

화장품

Nov 13, 2024

아모레퍼시픽 Investor Day 후기

Overweight

유지

BY25 경영전략: 브랜드 경쟁력 강화/글로벌 리밸런싱 가속화/채널 대응력 강화

11/12 아모레퍼시픽은 Investor Day에서 BY25 3대 전략 방향을 공유함. 1) **브랜드 경쟁력 강화**. 기존 중국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형 브랜드 설화수/이니스프리/려가 1~2년간 리브랜딩에 준하는 제품 혁신을 진행한 바 있음. BY25 3대 브랜드 수익성을 YoY 6%p(YoY +600~700억원) 개선 목표. 또한, 라네즈는 서구권, 아시아 매출 비중을 50%까지 확대 목표 중이며, 립 외 스킨케어 카테고리도 확대 예정. COSRX는 RX 비중을 20%이상 확대 목표. 또한, 최근 Mimo by 마몽드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5개월 만에 출시하는 등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음. 2) **글로벌 리밸런싱 가속화**. BY25는 미국/일본/유럽을 주요 국가로 선정. 3개 국가 비중을 BY24 38% → BY25 53% 확대 목표(매출 YoY: 미주 90%+, 유럽 100%+, 일본 50%+). 미국은 세포라/아마존/틱톡 중심 성장, 유럽은 세포라 및 부츠 파트너십으로 신규 브랜드 진출/북유럽 권역 확장, 일본은 주요 오프라인 채널 확대/이커머스 및 MBS 본격 드라이브 예정임. 중국은 2년에 걸친 구조조정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자 폭 대폭 축소 흐름 예상함. 3) **채널 대응력 강화**. 글로벌 아마존 플랫폼 역량 강화해 신규 브랜드 론칭/국내 핵심 이커머스 채널 육성 집중 예정. 또한, 세포라와 미국 타겟 공동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 트렌드 대응 및 파트너십 강화. 상기 전략을 바탕으로 BY 25 가이던스로 매출액 YoY High-teen, OPM high-single digit을 제시함.

미주 사업 현황 및 전략

24년 6월 북미 RHQ 법인장으로 합류한 지오바니가 미주 사업 현황 및 전략을 공유. 지오바니는 유니레버, 로레알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지닌 뷰티 산업 전문가임. 1) **미주 시장 현황**: 북미 화장품 시장은 팬데믹 이후 고성장을 했다가 둔화. 뷰티 시장에서 히스패닉계 지출 YoY 16%(Vs. 백인계 11%) 고성장, Z세대 성장이 두드러진 점이 특징. 미국 주요 3대 채널 비중이 70% 이상(세포라 34%, ULTA 24%, 아마존 16%). K뷰티는 미국 시장에서 고품질, 고효능, 합리적 가격으로 인정받는 중. 모든 유통 리테일러들이 K뷰티에 관심을 가지며, K뷰티가 주류화된 segment가 된 상황임. 2) **동사 현황**: 북미 매출액 지난 3년 간 연평균 77% 고성장 중(Vs. 시장 13%). 미국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M/S는 23년 2.8% → 24년 YTD 3.7% 확대. 라네즈/이니스프리 브랜드 가시적 성과 중. 3) **목표**: 2027년까지 시장 성장률 3배 이상으로 성장해, M/S 10%의 No.3 프레스티지 기업 목표. OPM은 두 자릿 수 목표. 이를 위해 향후 3년 간 4개의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며, 그 중 1개는 25년 초 출시 예정임. 스킨케어 카테고리에 집중 및 기존 세포라/아마존/ULTA 채널 협업 강화할 것. 특히, 세포라는 1위 사업자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유리할 것. 한편,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함. 화장품은 수출 가격-소비자가격 괴리 높은 품목으로, 관세가 증가하더라도 영향 미미할 것.



[음식료/화장품] 권우정

3771-9082,
20240006@iprovest.com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저작권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 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_2024.09.30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6.0	3.3	0.7	0.0

【 업종 투자 의견 】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【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】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 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